북스

Books

페스트·콜레라 등 전염병의 역사 탐구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현대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의 역사를 탐구한 '전염병과 역사-제국은 어떻게 전염병을 유행시켰는가'가 번역·출간돼 나왔다.

미국 역사학자 셸던 와츠가 1997년 쓴 책은 인간의 심리와 사회 풍조, 권력층의 태도가 전염병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연구서이다.

페스트와 한센병, 천연두, 매독, 콜레라, 말라리아 등 중세 유럽에 창궐해 근대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기승을 부렸거나 아시아, 아메리카 등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간 전염병을 사회·역사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뤘다.

〈모티브북·2만7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엽기 발랄·엉뚱 코믹한 '야구장 견문록'

야구장 습격사건

오쿠다 히데오 지음

무게 145g 내외의 작은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 타자에게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35초. 타자가 이 공의 위치와 속도를 판단한 뒤 106㎝ 내외의 방망이로 때려내는데 0.47초. 왜 사람들은 2초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승부가 갈리는 야구에 열광하는 것일까?.

신간 '야구장 습격사건'은 '공중그네'를 쓴 인기 일본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야구 에세이이다.

저자가 야구 관람을 위해 오키나와, 히로시마, 규수, 대만 등지를 여행하고 쓴 기행문 형식이다.

엽기 발랄한 소설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오쿠다 히데오는 야구 전문지에 칼럼을 기고할 정도로 탄탄한 야구 내공도 책을 통해 소개한다.

창작의 고통과 밀려드는 원고청탁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울적해서 견딜 수 없어진 저자는 어느 날 문득 야구장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저자는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요코하마 베이스타스 선수들과 함께 오르게 된 것을 자랑하기 위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지만 아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그는 "베이스타스 선수들이랑 같은 비행기를 탄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남긴다.

다시 태어난다면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그의 목숨 건 야구 여행은 야구장에서 절정에 달한다.

그는 야구선수 후루타를 응원하는 한 여성에게 "야구를 하지 않았다면 절대 인기를 끌수 없는 얼굴이잖아"라며 그의 생김새를 깎아내린다.

또 전날 경기에서 3타수 무안타에 그친 이노우 선수에게는 "오늘도 못 치면 저녁 굶어"라고 비아냥거린다.

몸을 사리는 스타 선수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최선을 다한 2군선수나 상대팀 감독에게는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낸다.

인기 작가 오쿠다 히데오의 '야구장 습격사건'은 일본 야구에 숨어 있는 재미를 소개하는 책이다. 사진은 프로야구 KIA와 SK의 경기모습.

〈광주일보 자료〉

그는 소설가가 아닌 야구의 경기 내용에 따라 칭찬과 욕설을 번갈아 퍼붓는 평범한 '야구 팬'의 모습을 드러낸다.

기록과 승부보다는 야구 자체를 즐기는 일본인들의 모습도 사실적으로 그렸다.

일본 프로야구의 강팀 자이언츠의 우승이 결정될지도 모르는 밤에 자신이 응원하는 하위권 팀의 경기를 묵묵히 지켜보는 모습 등을 통해 야구가 주는 감동을 소개한다.

이야기는 대부분 일본 프로야구 소재로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익숙한 이름들도 자주 등장한다.

특히 일본 야구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다 올 시즌 한국에서 뛰고 있는 페타지니 선수에 대한 일화는 흥미롭다. 고교동급생의 어머니와 결혼한 페타지니는 부인보다 스물다섯 살이나 연하이다.

또 2009년 WBC 일본 대표팀 감독으로 "다시는 한국과 붙고 싶지 않다"는 명언을 남긴 하라 감독의 이야기도 등장한다.

이 밖에 마사지를 받으며 즐거워하고, 웨이트리스의 웃는 얼굴에 갑자기 프러포즈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여행의 뒷이야기도 곁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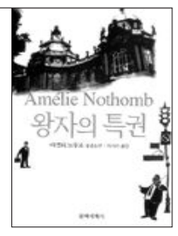
〈동아일보사·9,8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왕자의 특권

아멜리 노통브 지음

죽은자의 삶 훔쳐 사는 사기꾼의 삶



어느 날 누군가가 내 집의 거실에서 죽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대부분 경찰을 부르거나, 응급센터의 전화번호를 누르겠지만 '그'는 색다른 선택을 한다. 죽은 이의 신원을 훔쳐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프랑스 소설가 아멜리 노통브가 펴낸 새책 '왕자의 특권' 주인공의 선택이다.

'살인자의 건강법', '적의 화장법', '내 나이 세살 때' 등으로 국내 문학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외국 작가 중 한명인 아멜리 노통브가 펴낸 이번 소설은 가벼운 코미디와 탐정소설의 느낌이 어우러진 책이다.

평범한 남자 밥티스트 보르다보의 인생은 한 순간 바뀐다. 낯선 사람이 찾아와 자기 집 거실에서 느닷없이 죽는 바람에 고민에 빠진 그는 죽은 이의 대단한 부자임을 알고 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사기꾼이 되기로 한 것이다.

순간의 결정으로 지루하고 보잘 것 없는 밥의 삶은 근사한 저택에서 죽은 남자올라프가 되어 그의 아름다운 아내 지그리드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갑게 식힌 고급 샴페인을 마시는 호화로운 삶을 살아간다.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은 다양한 샴페인이다. 대저택을 벗어나지 않는 밥이 아름다운 여자 지그리드와 나눠 마시는 뵈브 콜리코, 돔 페리뇽, 크루그 등 고급 샴페인을 두 사람을 이어주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

밥의 사기 행각은 성공할 것인가. 현실과 상상을 넘나들며 전개되는 이야기는 유쾌하고 기발하지만, 미스터리가 해결되지 않는 결말 부분을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작가는 '왕자의 특권'과 관련된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타인의 신원을 입고 잠깐의 휴가를 보내는 상상을 해보라"고 권한다.

자기 자신이기를 그만두는 것보다 더 굉장한 휴가는 없기 때문이다.

〈문학세계사·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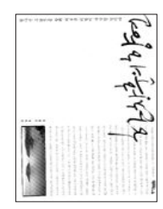
새책

▲내 인생의 오디션=국가원수를 비롯해 정치 지도자, 유명 배우, 살인자 등 숱한 뉴스 메이커들과 인터뷰를 성사시킨 전설적인 뉴스앵커 바버라 월터스의 회고록. 전 세계 영향력 1위 앵커 우먼이 들려주는 사랑과 성공 이야기로 남성들이 텔레비전을 지배하던 시절에 시작해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좌절과 실패, 우여곡절을 상세히 담았다. 〈프리뷰·3만원〉

▲솔로이스트=미국인에게 감동을 안기며 로스앤젤레스의 복지정책을 바꿔놓은 어느 특별한 노숙자의 이야기. 인기 칼럼니스트 스티브 로페즈는 시끄러운 지하차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정신분열증 환자 나다니엘에게 흥미를 느끼고 그를 인터뷰한다. 이후 칼럼은 미국 전역에서 독자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복지정책까지 바꾸게 했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낙선재의 마지막 여인=일본사람이 쓴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의 일생을 담은 평전이다. 이방자가 왜 조선의 왕자비로 선택되었는지, 왕자비가 된 뒤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왜 전후 대한민국에 남아서 복지사업에 정열을 쏟았는지를 분석했다. 또 이방자의 결혼이 이씨 왕가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동아일보사·1만3천원〉

▲여자라는 종족=72세의 고령으로 미국 문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성 작가로 문학성과 대중성을 담보하고 있는 조이스 캐럴 오츠 단편집. 잔혹감과 아름다움의 경계를 넘나들며 아홉 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사회의 병들고 일그러진 단면과 그 속에서 여성이 교묘하게 억압받고 희생되는 얼룩진 현실을 보여준다. 〈예담·1만1천원〉



▲한창훈의 향연=바다와 섬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발표해온 소설가 한창훈씨의 첫 번째 산문집. 고향 거문도에서의 유년기와 여수로 나온 뒤 성장통을 겪으며 커가는 이야기를 비롯해 살아오면서 만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낸다. "산골 아이 지게 작대기 너머 비행기 올려다보듯 세상이란 돌담과 몇 이랑의 밭과 그것보다 조금 적은 숫자의 어선,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바다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자랐다는 작가의 눈길이 선하다. 〈중앙books·1만1천원〉

▲내 몸을 찾아 떠나는 의학사 여행-2500년 몸의 신비를 탐사하다=인간의 육체를 지도 삼아 떠나는 의·과학 탐험기다. 두개골 수술을 처음 시도한 원시시대부터 히포크라테스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 인간 해부를 둘러싼 교회와 과학자간의 한판 전쟁이 벌어졌던 중세,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가 시작된 현대까지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과 과학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냈다. 〈효형출판·1만3천원〉

▲동행 기적을 그리는 호박수녀=2001년 출간된 '동행'의 개정판으로 장애인 화가수녀 윤석인의 그림에세이를 담았다. 저자는 진정한 장애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마음의 장애라 말하며, 평범하지 않은, 평범할 수 없었던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기록한다.

〈가라뫼·1만4천원〉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since 2005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신속한명도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두암동	대1470,건2473	37억6천	18억2천	5층교회,학원
두산동	대740,건3118	35억8천	18억3천	7층 빌딩
운천시	대1191,건1501	14억	5억	볼링장
양동	대809,건1060	17억8천	7억9천	3층상가건물
화순읍	대6285,건6017	66억9천	19억2천	4층 찜질방
운암동	대2171,건810	48억7천	21억8천	단층음식점
금남로	대776,건3231	31억6천	11억3천	7층 빌딩
담양읍	대4500,건4909	64억6천	28억9천	5층 찜질방
황금동	대1602,건5084	101억	45억	극장
구동	대1048,건2995	36억8천	20억	요양병원
쌍암동	대3600,건11023	112억	32억	7층 찜질방
계림동	대215,건407	3억5천	2억8천	4층 원룸
계림동	대298,건534	4억4천	3억7백	4층 원룸
중흥동	대161,건239	1억9천	1억3천	3층 원룸
송정동	대636,건1134	9억7천	3억4천	4층 빌딩

숙박시설/상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계림동	대251,건494	4억4천	1억5천	5층모텔
두암2동	대1741,건1327	11억2천	4억	숙박,수영장
화순도곡	대1285,건3261	32억4천	14억5천	5층온천모텔
쌍암동	대599,건1812	19억9천	11억1천	6층모텔
계림동	대358,건1000	8억7천	3억8천	5층모텔
쌍암동	대533,건2496	25억	17억5천	8층 모텔
순천시	대737,건2295	21억8천	12억2천	6층모텔
화순도곡	대2042,건2796	19억4천	8억7천	5층모텔
백운동	대509,건1389	14억	6억3천	6층모텔
무주설천	대1324,건1406	14억8천	11억8천	무주스키텔
치평동	3층전용119㎡	2억4백	7천3백	오피스텔
용두동	2층전용226㎡	4억2천	3억3천	PC방
쌍암동	4층전용997㎡	12억8천	5억6천	학원
치평동	2층전용262㎡	4억8천	2억6천	사무실
중흥동	1층전용68㎡	4억3천	1억9천	써너스전대

공장/토지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곡성오곡	대47030,건9992	96억	43억	콘크리트공장
옥룡	대3306,건2315	18억4천	12억8천	2층공장
옥동	대1652,건1555	11억2천	6억2천	2층공장
나주공산	대13974,건1036	6억5천	4억5천	단층공장
화순능주	대900,건602	6억9백	3억4천	파프리카공장
장성황룡	대3166,건2474	17억2천	9억8천	제약공장
하남동	대1736,건1024	9억8천	6억8천	단층공장
영광읍	대1653,건967	2억8천	1억5백	냉동공장
옥룡	대1897,건1323	5억8천	4억6백	2층공장
월출동	건893	9억5천	3억4천	건물만매각
옥룡	대1652,건1040	7억2천	5억	2층공장
곡성입면	대3640,건858	2억5천	1억8천	금속공장
쌍암동	대 441㎡	4억8천	2억7천	중심상업지역
쌍촌동	대 595㎡	2억8천	1억5천	2종주거지역
화순오곡	대 4493㎡	6억7천	2억4천	관광진흥지구

아파트/빌라 정이사 010-5879-0085

소재지	명칭	평	총층/층	감정가	최저가
금호동	미재주은	32	20/16	1억4천	1억1천
쌍암동	우미광장	24	18/6	8천8백	6천1백
방림동	라인효천	27	15/7	6천5백	4천5백
풍암동	금호타운	49	16/7	2억4천	1억6천
진월동	대주2차	31	15/13	9천5백	7천6백
풍암동	금호타운	45	14/4	1억7천	1억2천
운암동	블루시안2차	33	10/6	1억6천	1억1천
백운동	송촌아파트	51	14/10	1억7천	1억1천
치평동	중흥S클래스	45	16/3	1억9천	1억3천
마륵동	희망가	33	13/2	1억6천	9천2백
문흥동	금월트리뷰	33	31/1	1억4천	8천1백
봉선동	무등2차	32	24/22	9천5백	6천6백
일곡동	대림2차	33	18/2	1억3천	9천1백
주월동	삼다에코빌	32	8/7	1억4천	1억
봉선동	무등2차	52	24/15	2억	1억4천

주택/재개발 손해연이사 010-9611-2817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우산동	대53,건52	1억3천	7천2백	주택
회정동	대40,건39	7천5백	4천2백	2층주택
회정동	대36,건29	8천6백	4천8백	2층주택
삼라동	대124,건55	1억8천	5천9백	주택
화순이양	대212,건31	2천2백	1천6백	주택
우산동	대34,건46	8천3백	4천6백	주택
회정동	대51,건56	1억5천	8천6백	주택
농성동	대48,건55	1억9천	1억8천	상가주택
주월동	대32,건33	7천4백	5천1백	2층주택
중앙동	대64,건67	2억4천	1억6천	주택
양림급정	대94,건28	1천4백	4백	주택
담양금성	대72,건24	3천7백	2천6백	주택
운암동	대56,건64	1억5천	8천6백	2층주택
동산동	대58,건58	1억4천	1천2백	2층재개발
회정동	대44,건81	1억5천	8천6백	2층주택

근린주택 박병수팀장 010-4640-2142

소재지	대지/건물	감정가	최저가	비고
쌍촌동	대111,건396	10억4천	7억2천	5층상가,목욕탕
월산동	대65,건149	3억1천	2억5천	3층상가주택
두암동	대444,건748	37억4천	19억2천	5층 교회
북포시	대67,건238	4억8천	3억4천	5층상가주택
계림동	대61,건155	1억9천	8천9백	3층상가주택
동명동	대124,건115	3억8천	2억1천	2층근린주택
소촌동	대68,건146	5억	3억5천	4층상가주택
주월동	대110,건305	6억8천	3억8천	4층 목욕탕
쌍촌동	대67,건152	4억8천	3억2천	4층근린주택
오치동	대59,건70	1억7천	1억2천	2층상가주택
문흥동	대42,건60	1억3천	6천	2층근린주택
화순청풍	대871,건910	1억6천	9천2백	1층식당,주택
월산동	대34,건57	1억	4천5백	2층상가주택
중흥동	대128,건234	5억4천	3억8천	3층 목욕탕
두암동	대46,건57	37억4천	19억2천	5층 교회

생촌동 [아파트부지]
2층 일반가주지역2440㎡
교회, 도시형생활주택, 고급빌라빌라
매매가 12억8천
매매문의010-7570-7525

신안동[원룸]
대191㎡,건736㎡
원룸 21개 ROOM
신축컨디션, 풀옵션
매매가 4억3천
매매문의010-7570-7525

우산동 [7층빌딩]
대740㎡,건3118㎡
감정가 35억
최저가 18억
전문상담 010-7570-7525

홍장로4가 [5층빌딩]
대466㎡,건2050㎡
감정가 37억
최저가 16억
전문상담 010-7570-7525

화순읍 [찜질방]
대6285㎡,건6017㎡
감정가 66억9천
최저가 19억
전문상담010-7570-7525

진월동 [광주대입구]
상가(지하) 매매
호프 132㎡
사용중인 상업주
매매가 1억1천(대출7천)
보증금(1천) 실인수금3천만원
매매문의 010-7570-7525

계림동[E마트코너매매]
1층 17평형,
매매가 6천5백만(급매)
선물코너,속옷가게 적합
매매문의 010-7570-7525

광주 전지역 빌딩 전문
빌딩(대형)임대 및 매매
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수완지구 전지역
수익성 빌딩 및 사옥 중개
매수 및 매도
전화상담 환영
(유)코리아랜드
☎ 959-1033, 010-7723-1033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